

# 따사로운 해님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

래어라면 예기공전이 기다리고 자라나면 소년공전, 소년단야영소들이 어서 오라 부르는데,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공화국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의 천국이라 부르곤 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국이어서 경제는 명승지, 명당자리마다에는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이 솟아나 행복의 노래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올해만 보아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맞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연풍호소년단야영소, 장자산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이 세워져서 시작되었다.

야영이 한창인 지금 그 어느 야영소에 가보아도 등산, 체육, 예술활동, 리스실습 등 다양한 야영활동을 통하여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창조능력, 건장한 체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학생소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고 야영생활에 신비로움과 흥미를 느끼는 웃음소리가 들을 수 있다.

공화국의 멀리 북변에, 바다가마을이나 두메산골에 집을 둔 아이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아이들까지도 엄마롭고 친근하게 부를만큼 따뜻한 정이 흐르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몇년전 여기서 행복넘친 야영생활을 보내며 어느 나라의 야영장이든 친심의 목소리가 되새겨진다.

《이곳은 신데렐라의 꿈이 실현된 곳이다. 모든것이 정되고 마음에 꼭 들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조선에 아이들의 (오아시스)가 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이것은 인류의 리상이 아닌 조선의 현실이다.》라고 격정을 터놓곤 했다.

동해의 명승 현산시, 여기에 위치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현지도의 발자취를 새기신것은 주체48(1959)년 6월이었다.

강원도로 말하면 지난 세기 조선전쟁때 전선지역이었으므로 어느 도보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중에서도 현산시는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함께 함포사격까지 받아 그야말로 재더미로 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현산시를 하루빨리 복구하여 아이들을 위한 야영소를 큼직하게 지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현장의 벼들, 한그의 세멘트가 귀중한 때였지만 포화에 그슬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노래부터 달아주자고 하시며 야영소건설에 막대한 국가자금을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 받들

려 야영소는 빠른 기간에 일떠서 1960년 8월 첫 입소식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 9월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송도원의 명당자리에 소년단야영소를 지으려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제일 좋은것은 마땅히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셨다.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정속에 강원도소년단야영소(오늘의 12월6일소년단야영소), 평양시묘향산동산소년단야영소, 석암소년단야영소, 연풍호소년단야영소들이 솟아났으며 국가의 부담으로 해마다 활기를 띠고 운영되었다.

나라의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도 중단함이 없이 운영되어온 소년단야영소들이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었던 주체82(1993)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세계적인 야영소로 웅장하려 하계 일떠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해바다의 건축형식을 자랑하며 번듯하게 지어준 야영소를 만족 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야영소 건설하는 데 거액의 자금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한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당에서 마음먹고 어린이들에게 주는 소년단야영소인데 아까울것이 없다고, 현대적인 큰 소년단야영소를 어린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었다.

야영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마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또다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셨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노래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 유영한 맑은 바닷물에 생생한 웃음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장군님.

피눈물의 해인 주체83(1994)년을 보내고 새해의 첫 아침을 맞이한 그 시각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으신 곳은 설악산공원부대가 아니라 현능동인 다복초소였다.

감격의 눈물짓는 병사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평양에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설악산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자신께서는 학생소년공정의 그 불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총으로 말하고 싶어서 동무들에게로 왔다고 뜨겁게 교시하셨다.

그날에 이어 사나운 바다를 헤쳐 찾으신 초도의 설악산대과 미끄러지는 야전승용차를 미시며 오르신 오션산갈베랑길,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넘으신 철령의 굽이굽이...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 사생결단으로 헤쳐가신 준엄한 전선일이 있어 아이들앞에는 야영기 휘날리는 야영소, 해돋는 바다와 등산길이 펼쳐질 수 있었다.

해 또다시 야영을 조직해주셨을 때 난 너무 좋아 (만세! 나도 야영간다!) 라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수령님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어린 학생이 일기장에 쓴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 쓰신 장군님의 현신과 로고에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었다.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상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해님의 모습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야영을 왔던 무산군의 한 학생이 쓴 일기의 구절이 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

철부지인 절 용서해주십시오. 처음엔 난 막 울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누나, 형님들만 야영갔기때문입니다. 난 왜 아직 안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경애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릴 위

할 때 난 너무 좋아 (만세! 나도 야영간다!) 라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수령님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어린 학생이 일기장에 쓴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면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 쓰신 장군님의 현신과 로고에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었다.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상을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해님의 모습으로 간직하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함북도 북부평해지역에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야영을 왔던 무산군의 한 학생이 쓴 일기의 구절이 있다.

《경애하는 아버지 수령님.

철부지인 절 용서해주십시오. 처음엔 난 막 울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누나, 형님들만 야영갔기때문입니다. 난 왜 아직 안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경애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릴 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참다운 정치**

강산에 차넘치는 청신한 공기에도 같이, 봄날의 따스한 햇빛과도 같이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속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것이 있다.

인민위천!

바로 여기에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 있다.

조선로동당은 장장 70여년간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무조건 해내는 것을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충실해왔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라는 것,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구원하여오신 좌우명이고 정치철학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조선로동당은 지난날 천대와 반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인민대중의 지위와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았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와 영광을 떨쳐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삼고 당과 국가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력사를 변함없이 즐기며 이어가려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본래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최고정화를 이루고 있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해오시는 혁명정도의 원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어떤 험한 길도 기꺼이 걸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할수록 그들중으로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 땀 흘리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인민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고통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해 겪는 고생을 용감한것으로, 더없는 보람과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며 위대한 인민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다.

국가와 부흥발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도전과 적면들이 증첩되었지만 조선로동당은 불굴의 투쟁과 헌신적인 복무로써 조국과 인민을 지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에 충실하였다.

인민의 운명을 역적으로 지키기 위해 밀고만 전진길과 위협천만만 화신길들을 끊었어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호자, 혹독한 자연의 광란으로 사소해가나만 인명피해가 발생할세라 마음조이며 긴긴 밤을 지새우신 자애로운 어머니, 천애한 방편전쟁의 나날 약품구입때문에 애로로 겪을 인민생활상으로 마음쓰시며 깊은 밤 평양시반의 약품들을 돌아보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앓고있는 지방의 인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천히 마련하신 약품들도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리며 온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절감한것은 그처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품을 떠나 순간도 살수 없다는 철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들과 문화휴식처들이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되고 있다.

인민위천!

이 는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려는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신조이며 영원한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령도를 받든 조선로동당이 있어 공화국인민은 무궁한 영광과 행복을 누려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홍은주

**수필 리상에 대한 생각**

사람은 누구나 잘살기를 바란다. 자신과 가정은 물론 나아가서 자기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 남들보다 잘살고 우월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란다고 하여, 노력한다고 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소박한 꿈마저 없지 않다고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내가 사는 이 땅, 우리 공화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리상과 오늘에 대한 생각을 세간만 자신의 집을 갖아가는 길에 깊이 해본적이 있다.

마칠전 일요일, 휴식일이 며 아들이네가 살고있는 화성거리의 살림집을 찾았던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앞에 절음을 멈추었다.

거리를 따라 시린스레 뻗어간 아스팔트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현대적인 건축미를 갖춘 살림집에 행복의 주인들이 보금자리를 편 주택지주라면 그 맞은편은 건설중인 고층아파트들이 일떠서 자기의 모습을 완연히 드러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장이었기때문이다.

내가 걸고있는 도로에서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얼굴에 함뿍 담은 주민들이 오가고 건너편에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창조해가는 건설자들의 작업모습이 나로 하여금 류다른 감회에 젖어들게 했다.

문득 화성거리에 입사한 아이들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내보이며 눈물이 그렇게서 하던 머느리의 말이 가슴을 쳤다.

《우리같은 신혼부부한테도 이런 훌륭한 집이 차례질 줄은 내심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원수님은 인민

의 꿈과 리상을 최상의 현실로 꽃피우시는데...》

리상이란 사람들이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가장 높고 훌륭한 희망이며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처럼 긍지롭고 행복한것은 없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마면 모든 이 땅에서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들은 어떻게 실현되고있는것인가.

머느리의 격정어린 말을 듣는 나의 뇌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령도의 려정이 뜨겁게 되새겨졌다.

몇해전 뜻밖에 큰불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를 찾았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음쓰신것은 한해농사에 대한 문제만이 결코 아니었다.

태풍과 큰물이 휩쓸어간 집보다도 나라의 쌀독을 더 걱정하며 거역히 일떠선 우리 인민들,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장 훌륭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마련해주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함북도의 북부평해지역을 찾았을 때

을 택하고 있다.

피리사회의 어느 주민이 《자식에게 미안해도 이 저 주로 온 땅에 그의 미래를 맡길수가 없어 함께 떠난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린 자식과 함께 목숨을 끊은것은 이 사회야말로 리상과 꿈은 고사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강그리 유린말살하는 세계 최악의 인간생지옥이라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인민의 리상이 바라던것보다 더 황홀한 현실로 펼쳐지고 그 현실이 더 큰 리상을 부르는 내 나라, 우리 인민모두를 참다운 리상의 향유자들로 내세워주고는 누구도 현실이 시간을 다루며 펼쳐지고 있는 내 조국.

절세내외를 모시어 기쁨속에 마중가는 공화국인민의 미래는 얼마나 더 환희로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눈앞에는 화성거리의 회한한 모습과 함께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할 조국의 모습이 안겨왔다.

정성남

